

연구노트

-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II):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 강화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최인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김종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직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자 인사상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문미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II):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 강화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년기 남성과 여성들은 학습과 일, 여가에의 참여 기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년기를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1)의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37.9%)이 가장 많고, 무학인 경우(25.0%), 고등학교 졸업(14.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무학의 경우 남성은 10.3%인 데 비해 여성은 35.0%로 고령여성의 학력이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5.7%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참여율도 매우 낮다. 즉, 현재 노년기 여성들은 기초 학력도 낮고, 평생교육 참여율도 낮아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활동 기회 역시 취약하다.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 남성 고령자는 40.6%, 여성 고령자는 21.8%로 나타난다. 2010년 60세 이상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45.2%이며, 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보면 임시직(20.7%), 상용직(12.8%), 일용직(10.7%) 순이다. 2012년 현재 고령층(55~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로, 취업 희망 고령층이 일하기 원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4.4%)'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36.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고령층의 취업 희망 비율(72.5%)이 여성 고령층(47.2%)보다 높다. 취업희망 비율에 비해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 노년기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의 여가생활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박성정 외(2013)의 조사에서, 노년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가활동에 자주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22.5%에 불과하였다.



노년기의 생애를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립적 생활을 위한 설계와 체계적 준비, 직업역량 및 사회참여, 여가 역량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노후설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설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박성정 외(2013)의 조사¹⁾에 의하면, 55세 이상 여성의 노후설계교육 참여경험률은 2.8%에 불과한데, 참여자의 85.9%는 노후설계교육이 노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만55세 이상 여성의 30.5%가 노후설계교육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5-64세 여성은 44.8%, 65-74세 여성은 26.0%가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노후설계를 통해 노년기 여성들이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노후설계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 40세~만 69세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의식, 역량, 노후준비 및 설계서비스 참여 경험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노후설계서비스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FGI를 진행하여 서비스의 성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기대 효과

100세 사회로 상징되는 고령사회를 맞으면서, 노년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노년도 준비를 잘 해서 맞이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에 대한 대비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준비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성인 초기, 중기 여성의 삶과 경력은 남성과 달라, 이를 고려한 노년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노후준비 및 설계를 위한 정책 서비스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박성정 외(2013),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Ⅰ): 학습·일·여가참여 실태와 요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최인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현재 우리사회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일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김경은 외, 2011)를 확립했으며, 일중심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세대적 특성이 있다. 동시에 이들은 IMF 이후 불안정한 고용과 직업상황, 성역할의 변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기대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를 기점으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재편성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성미애·옥선화, 2002). 그러나, 은퇴와 가족생활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zinovacz & Ekerdt, 1996)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은퇴, 가족 생활, 삶에 초점을 둔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자료(통계청, 2013)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여, 남성은 70~74세(3.74점), 여성은 55~59세(3.50점)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이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율이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3) 중장년기 부부간 갈등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년기 및 노년기는 자녀의 결혼 등으로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을 1) 은퇴 전/후 가족생활 재편 현황과 2) 가족 관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분석, 2) 은퇴 전/후 중장년기 남성의 개인과 가족의 삶 재편성 과정 및 가족갈등 양상 분석, 3) 은퇴 후 가족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육구 분석 및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등이다.

먼저,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분석은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국 규모의 조사인 「2010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와 「20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4)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양적자료 분석을 통해 찾기 어려운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맥락, 경험 등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은퇴한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14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또는 심층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은퇴 후 개인과 가족의 삶 재편 과정 및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은퇴 전 중장년기 남성(6인)을 대상으로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장년기 및 노년기 가족생활에 대한 전망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초기 노년기 남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현황, 은퇴를 둘러싼 개인 및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관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본 설문조사는 기존 2차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은퇴와 가족, 노후에 대한 예측 등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고,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 및 지원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기개입의 중요성, 즉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perspective)에 기반하여 중장년기 이전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 및 서비스의 참여 대상을 '중장년 및 노년기'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김경은·곽금주·민하영·최지영·전숙영(2011). 한국 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pp. 135-155.

성미애·옥선화(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pp. 1-21.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2」.

Szinovacz, M.E., & Ekerdt, D.J. (1996). Families and retirement. In R. Bkueszner & V. H. Bedford(eds.), *Aging and the family: Theory and research*, Westport: Praeger. (pp.37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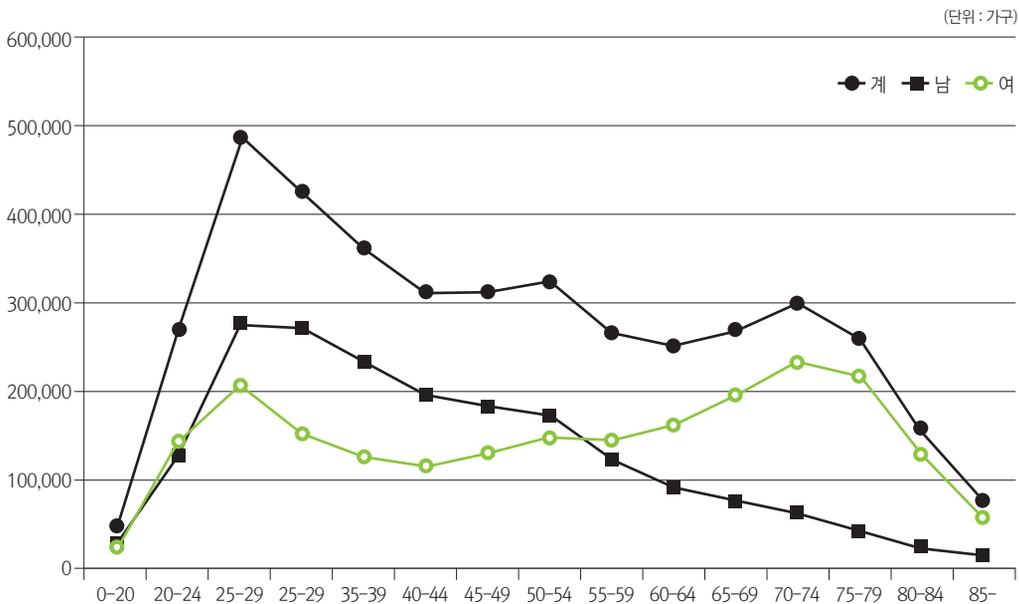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김종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0년 414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47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현재 23.9%로 2000년 15.5%에 비해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남성이 192만4000가구, 여성이 221만8000가구로 여성 1인 가구의 규모가 큰 상황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거 사별 후 노인층에 집중되던 1인 가구는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가구 경제상태와 고용상태는 2인 이상 가구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령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에는 6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성 및 연령대별 1인 가구수(2010)

여성 1인 가구 중 노인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경제활동 연령대의 1인 가구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연령대에서는 성별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은 위의 그림과 같다. 가장 많은 1인가구 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청년층이며, 이어서 75세 이후 1인가구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 1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과 달리 여성은 70세 이후에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은 약 55세를 기점으로 1인 가구수 감소폭이 커지는데 반하여 여성 1인 가구는 이 연령대를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0대 후반부터 초기 노인기에 여성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이 시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연령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20~34세, 35~49세, 50~64세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각각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의 1인가구 특성과 이들의 고용-복지 수요 등을 발굴하고 있다. 가구는 경제적 행위의 단위이므로 개인과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가구에 속한 개인과 1인 가구의 개인은 경제적 행위와 필요성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김중숙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청장년층 1인 가구의 빈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은 노후 빈곤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심각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정책은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들의 취약성은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등 주요 정책대상자에 1인 가구가 포함된 것도 2013년에 이루어질 정도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성별로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구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상이하야 소득구조와 지출구조가 다르고 필요성과 요구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고용과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장년층의 고용불안 현황과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 및 취약성을 연계해서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복지-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여성 1인 가구의 변화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나가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자 인사상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문미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공직 내에서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차별 실태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현 정부에서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양립의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직인 행정기관은 주요 노동·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과와 쟁점을 검증하는 시험대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인력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정은 민간부문에 비해 실행력이 매우 크다 하겠다. 현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직임용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98)’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65)’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17년까지 15%로 확대(12년 9.3%)하고 공공기관별 목표제 도입 및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를 양성(17년까지 3만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동인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직업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나아가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에는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승진과 보직배치 등에서의 인사상 차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방

안을 통해 공직내 인적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행정기관에서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자에 대한 인사상 차별 실태 및 개선 방안은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고용률 70%달성이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 인사상 차별 개념 및 범주
- 공직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자 현황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자에 대한 인사상 차별 조사 분석
- 공직내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3. 기대효과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자 현황 자료 제공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용자의 인사상 차별개선에 대한 방향 제시
- 공직내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정착